

게임산업 규제개선 지속...창의적 생태계 조성

문체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행...VR 게임콘텐츠 활성화

정부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 주력 산업이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과 같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

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됐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을 시장의 자율심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무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

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의회적 요건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뚜렷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문체부는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 여행!

인천해원고,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참가

인천해원고등학교(교장 김영민)는 '배움을 즐기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10월 20-22일까지 3일간 일산 컨벤션(KINTEX)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 참가했다.

개교한지 4년 차인 신철학교리만 그 동안 일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다양한 체험활동 등 2015년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로서의 각종 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 수업활동 결과물, 동성상 등 인간 자료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람회장 상의 학교도움로 참여한 2학년 현승호 학생은 "박람회장에서 학교를 소개하고 인재를 담당하면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비록 4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성장해 나가는 학교의 모습과 더불어 자신의 성장을 함께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감격스러워 했다. 또한 행사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사진을 찍어주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두뇌 활동을 한 학생회장이 강경민(2학년) 학생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학교를 더 잘 알기 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회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6대 교육개혁의 성과를 한 곳에 모아 전국 단위로 시행된 교육 진지 한마당으로 우리교육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김영민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의 교육활동을 공유할 뿐 아니라 전국 우수학교들의 교육성과, 교육방법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인원성 기자 as@



영양교육지원청, 제17회 교육장배 중학생 축구대회 개최

축구 A그룹 영양금정중 우승, 시중중 준우승, B그룹 영양중 우승, 신부중 준우승

전라남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창)은 10월 21일 오전10시 제17회 전라남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배 중학생 축구대회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로 학생들이 서로 화합을 이끄는 차리로 교육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병창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는

"학교 현장의 건전한 스포츠문화 정착은 물론 스포츠 활동으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심과 배려심, 스포츠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그룹 우승팀인 주상 선수 영양금정중학교 한도호 학생은 "우리팀이 우승하게 된

것은 평소 학교스포츠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감독 선생님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선수들 모두가 평소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팀력을 잘 다졌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양중학교 문광일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축구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학교에서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뛰어난 기능이 없어 보였으나 실전 경기에서 타 학교의 선수들보다 기량면에서 조금은 돋보이고 평소 선수들간 배려하고 협력하는 면에서 앞서 팀전력의 영광과 학교의 영광을 안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중학교와 관내 11개 중학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대회 결과 A그룹 1위에 영양금정중학교, 2위 시중중학교, B그룹1위에 영양중학교, 2위 신부중학교가 각각 차지하고 영양중학교와 김해진학생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이대영 기자 id@

'온기'와 '울림'이 있는 사랑의 음악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제4회 서부 학생오케스트라교 연합 발표회 개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원)은 지난 10월 18일 서부문화관에서 제4회 서부 학생오케스트라교 7개교의 연합 발표회인 '행복 나눔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다. 신원여자중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연주회는 신원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으로 결성된 '하이럼'의 국악오케스트라 연주로 막을 열었으며 가좌초등학교의 타악 오케스트라 '행복 두드림', 삼곡초등학교의 소리빛깔 윈드오케스트라, 신원여자중학교의 표준오케스트라 '다울림', 부원초등학교 표준오케스트라 '꿈틀', 원당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손으로 연주하며 마지막은 서곡중학교의 표준오케스트라 '하모니'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하는 제6회 전국학교예능교류 페스티벌 개막식의 오프닝 행사로 해군군악대의 웅장한 협연을 하였던 인천원당초등학교의 윈드오케스트라는 2013년부터 교육부 지정으로 창단했으며 졸업생 15명까지 포함해 8명의 단원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교는 사랑의 음악회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연주, 병원 위문 공연, 성료한 사랑의 소리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예술 학생들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50명의 단원들이 연주하는 서곡중학교의 '피터와 늑대'는 내레이션 형식의 해설이 곁들여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입문은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상상력과 음악적 감수성을 동시에 길러주는 멋진 연주로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두꺼운 악기를 연주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는데도 제법 각자의 악기가 가진 고유음으로 화음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무척 대견합니다. 작년부터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진행을 이끌었던 인천원당초등학교 조진성 교사의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학교 예술 교육 생태계가 더 넓게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인원성 기자 as@

푸른 가을 하늘 가르는 학생들의 함성

인천효성중, 체육대회·효성제 개최

인천효성중학교(교장 서정길)에서는 10월 21일 효성제를 열고 교육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을 한뜻으로 행복하 축제마당을 즐겼다.



효성인의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는 체육대회에서는 각종 구기 종목 이외에 학급의 협동심을 볼 수 있는 낫다리 밧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다. 매년 열리는 계주경기에서는 장기자랑을 준비해 온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학생들이 눈길을 끌었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단일 선생님이 준비과정부터 경기까지 함께 참여해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부평구민 품물단의 품물공연과 드림비상 학생들은 "앞으로도 전통을 잘 이어나가 행복하고 흥성한 축제가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인원성 기자 as@

올해로 12회째의 전통을 이어가는 효성제는 학생들이 숨어있는 가을 뽕내고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댄스공연까지 있어 사제사간의 정을 더할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수준 높은 공연화를 보여준 이번 효성제를 통해 우리 효성중학교 학생들의 기성과 인성까지 지킬 수 있었다. 마지막 효성제를 즐긴 3학년 장기자랑 수상 학생들은 "앞으로도 전통을 잘 이어나가 행복하고 흥성한 축제가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인원성 기자 as@

빅데이터 활용해 응급구급차 출동시간 확 줄인다

119응급구급차 출동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구급차의 출동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다 그다 외곽에 있어 출동이 집중된 중앙지역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선센터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119구급차의 출동 데이터 31만 건을 분석해 출동시간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119구급차를 재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A동의 경우 119구급차가 설치된 남쪽 지역은 구급으로 최근 인구가 정체했거나 아파트 개발 등이 이뤄진 북쪽에는 구급 출동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경우 119구급차를 중간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면 출동거리와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범위가 넓고 출동건수가 많은 B동은 인근지역인 C동 출동을 위해 119구급대 2개

D동의 경우는 119구급대의 출동시간이 오전 9시에 집중돼 있어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특정시간대에 운영하는 '이동구급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구급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급대 위치변경 및 차량 추가 배치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급장비도입 및 구급대원 교육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센터는 이번 분석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처의 최적의 이동경로 및 출동시간 구간을 찾아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분석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담동 도심형 프리미엄
신원아침도시 마인

청담동의 대역주!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인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청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세탁·건조·냉난방·재건축조합

신원아침도시(개발부)

문의: 02) 540-1160

청담동 119구급차 출동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구급차의 출동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선센터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119구급차의 출동 데이터 31만 건을 분석해 출동시간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119구급차를 재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A동의 경우 119구급차가 설치된 남쪽 지역은 구급으로 최근 인구가 정체했거나 아파트 개발 등이 이뤄진 북쪽에는 구급 출동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경우 119구급차를 중간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면 출동거리와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범위가 넓고 출동건수가 많은 B동은 인근지역인 C동 출동을 위해 119구급대 2개